



박찬(왼쪽부터), 나다운, 윤준명 전남일보 36기 수습기자들이 20일 전일빌딩245 옥상에서 전남일보 독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기자가 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독자 위해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기자 될 것”



나다운 수습기자

멀게만 느껴졌던 '면 수습'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막 전남일보에서의 발을 댄 수습기자지만 본보의 지령 1만호 앞에서 느끼는 벽찬 마음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들이 피와 땀으로 일군 회사에서 성장하고 있으니까요. 짧고도 길었던 3개월. 전남일보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좋은 사람들과 함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끌어 주신 선배들, 좋은 기자로 성장하길 바라다며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던 부장님과 국장님, 그리고 옆에서 든든한 버팀목

이 되어 주었던 동기들까지. 하루하루 힘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또 전남일보의 기사를 읽어 주고 기다려 주는 독자들을 생각하면 동력이 생겼습니다. 아직 너무나 부족한 수습기자이지만 꾸준한 노력하며 나아가다 보면 독자에 보탬이 되는 좋은 기자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가끔 흔들릴 때면 전남일보에 처음 발을 들였던 면접 날을 떠올렸습니다. 눈술 시험부터 면접 그리고 그날의 분위기까지 모든 기억이 생생하지만, 누군가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묻는다면 '어떤 기자가 되고 싶느냐'는 질문을 받았던 때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세상과 사람에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는 기자'가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은 없지만 1만호 발행을 앞둔 오늘 몇 마디 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전남일보의 역사에, 나아가 전남일보 2만호 발행을 기다릴 독자에게 부끄럽지 않을 기자로 성장하겠다'고 말입니다. 전남일보에 발을 들인 지 이제 겨우 3개월입니다. 아이템 발굴부터 취재, 그리고 기사를 쓰기까지 모든 과정이 아직은 어렵지만 합니다. 하지만 처음이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렵다고 포기하지 않고, 안 된다고 계을리하지 않고 끊임없이 발전해 전남일보의 든든한 일원이 되겠습니다. 독자를 위해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세상과 사람에게 보탬이 되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책임감과 항상 동행하는 기자 될 것”



박찬 수습기자

전남일보는 '어두운 과거에 진실의 빛을 비추라'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탄생한 개혁신문입니다. 1980년대 전두환 독재정권은 언론통폐합으로 국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멀게 했지만, 민주화를 향한 국민의 열의는 탄압보다 뜨거웠고 공포정치보다 매서웠습니다. 국민의 민주주의를 위한 열망은 전남일보 탄생 배경의 중심이자 변하지 않을 사시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3개월간 수습기자 타이틀을 달고 '전남일보'의 일원이 돼 경험해 온 시간은 지역 대표 정론지가 갖는

책임의 무게를 여실히 느낄 수 있었던 나날이었습니다. 또한 시민이 기사를 믿고 고통스러운 기억을 되살려 이야기를 전달해 줄 때 비로소 안전한 사회를 요구할 힘이 생긴다는 걸 배웠습니다. 하지만 시민이 기사를 믿고 이야기를 전달해 주기 위해선 준비된 자세와 태도가 필요합니다. 배우 고(故) 이선군씨 사건은 언론의 한계와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당시 언론은 의혹과 추문이 뒤섞인 정황만을 가지고 쓴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이선군씨가 마약 투약 혐의가 입증되어 처벌받

기도 전에 단순 의혹만으로 조사 과정에서 이런 광범위한 노출에 시달린 이유는 그가 유명 배우였기 때문입니다. 한 개인에게 큰 관심이 쏠린 사건에서 언론은 더 신중해야 합니다. 보도를 축소시키거나 대중의 관심을 다른 뉴스로 돌리자는 게 아닙니다. 당시 본질적인 마약 투약 의혹에 더 집중하고 경찰의 의혹만으로 그런 강도 높은 수사를 하는 게 정당인지에 대한 보도가 함께 쏟아져 나왔다면 언론은 해당 사건에서 더 균형감 있는 역할을 했을 겁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듣기 부끄럽지 않은 기자가 되기 위해선 언론의 의무와 한계를 모두 통감할 줄 알아야 합니다. 100% 중립은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공정의 길로 나아가갈 수 있습니다. 국민의 삶이 지금보다 좀 더 공정해질 수 있게 만드는 게 기자의 사명이라 여기며 책임감을 항상 동행하겠습니다.

“지역의 오늘 바로 적는 사관 될 것”

史官



윤준명 수습기자

1989년 창간호부터 지령 1만호에 이르기까지 지난 35년간 지역 제일의 정론지로서 위상을 공고히 했던 선배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존경을 보냅니다. 또한 이 지면을 빌려 전남일보에 꾸준한 사랑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지역민과 독자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길게만 느껴졌던 3개월 간의 수습기간을 마무리하는 중입니다. 선배와 동료들의 도움을 받으며 진정한 기자로서 홀로서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기사 한 줄을 쓰는 데에 머뭇거리고 비틀거리기 일쑤입니다. 기사 하나가 세상에 나오기

까지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매순간 부딪히며 깨닫습니다. 부족하고 미약하지만 기자의 덕목과 기본 소양을 부지런히 익혀 정의로운 사회를 고민하는 기자로 성장하겠습니다. 우리 호남의 지역소멸 현상은 해묵은 과제이며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존립이 달린 위기의 시점에서 오랜 기간 지역 공동체를 선도해 온 전남일보의 역할과 임무는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남일보의 일원으로서 지역 현안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지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깊은

애항심을 바탕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산실이자 시대의 등불인 빛고을에서 시민의 안녕과 광주·전남의 발전을 위해 달려겠습니다. 또한 현재 미디어 생태계는 뉴미디어 시대로의 변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기성매체에 위기를 불러왔지만, 이런 위협을 슬기롭게 극복한다면 새로운 활로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지역 언론은 참신한 소식의 전달과 흥미로운 콘텐츠 생산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젊음의 패기와 남다른 개성을 바탕으로 보다 전남다운 것을 탐구하고, 전남일보가 뉴미디어 시대에서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겠습니다. 기사 한 줄 한 줄에 수많은 이들의 발자취를 담으며 지역의 오늘을 바로 적는 기자야말로 우리 시대 진정한 사관의 모습이라 생각했습니다. '정도언론' 전남일보에서 호남의 사관으로서 꿈꿔왔던 로컬 저널리즘을 실현하겠습니다.